

Rhein Chemie “한국은 아시아의 핵심시장...”

Lanxess의 자회사인 Rhein Chemie가 접착제용 가수분해 안정제를 출시했다. 가수분해 안정제 브랜드 <Hycasyl>은 폴리우레탄 (Polyurethane) 접착제의 수명과 성능을 향상시킨 제품으로 포장, 전기·전자, 신발밀창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Rhein Chemie는 Lanxess의 첨가제 사업부문 자회사로 플라스틱, 고무, 접착제 등에 사용되는 다양한 기능성 첨가제를 공급하고 있으며,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Hycasyl>을 출시하고 한국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Rhein Chemie의 글로벌 세일즈마케팅 담당 Bruce Ernst 부사장을 만나 글로벌 첨가제 시장전략 및 아시아 마케팅, 새로 출시한 <Hycasyl>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Q. 랑세스는 글로벌 합성고무 메이저로 잘 알려져 있지만 Rhein Chemie는 생소합니다. Rhein Chemie를 소개한다면...

Rhein Chemie는 랑세스의 100% 자회사로 본사가 독일 Mannheim에 있으며 합성고무, 플라스틱, 윤활유 등에 사용되는 첨가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9년 매출은 2억5000만유로에 달했습니다.

특히, 합성고무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ngineering Plastics)에 사용되는 첨가제는 미국과 유럽에서 품질을 인정받아 수많은 수요기업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나 아시아 시장에서는 인지도가 낮은 편입니다.

Q. 10월27일부터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접착제협회의 컨퍼런스(ARAC)에서 신제품 <Hycasyl>을 선보였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ARAC은 아시아의 주요 접착제 생산기업이 모두 참가한 의미있는 행사로 30년간 놀라운 속도로 성장한 한국의 접착제산업 및 관련기업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Rhein Chemie는 아직까지 한국 접착제 첨가제 시장에서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에 컨퍼런스를 계기로 많은 수요기업과 교류하고 파트너십을 쌓아나가기 위해 출시했습니다.

Q. 한국 접착제 시장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는데, 한국에서 아시아 최초로 신제품을 발표한 이유는?

한국은 일본, 타이완과 함께 아시아 지역의 접착제 기술을 선도하는 중요한 시장으로 초고속으로 성장했고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됩니다.

전체 접착제 시장에 비해 첨가제 시장규모는 크지 않지만 Rhein Chemie가 내놓은 Hycasyl 제품은 고기능성을 구현하는 첨가제이기 때문에 고부가 그레이드 접착제 수요가 많은 한국시장에 처음 출시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입니다.

Q. 아직까지 국내 수요기업에서는 Rhein Chemie가 익숙하지 않은데 국내시장에서의 마케팅 계획은?
아직까지 한국기업과 파트너십은 형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국 영업조직을 따로 두지 않고 Lanxess의 영업·마케팅 조직을 통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지금까지 기회를 놓쳐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컨퍼런스 참석을 통해 많은 수요기업의 관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협력관계 구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Q. Hycasyl 제품은 기존 접착제 첨가제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존 첨가제는 접착제의 빌딩 블록을 아우르는 백본 형태를 만드는 첨가제이나 Hycasyl은 접착성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접착력을 형성하는 백본 자체를 개선한다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안정성 면에서도 경쟁제품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장할 수 있으며,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어 안전과 환경 기준 역시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MSDS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수요기업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역시 별도의 기술지원부서가 직접적으로 파트너십을 통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접착성능 향상은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단량체 혹은 중합체의 종류나 스펙에 따라 4가지 종류의 첨가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원료 수지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물성에 비해 한 차원 높은 접착 유지시간, 박리강도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Hycasyl을 사용하면 중간성능 접착원료로 고성능 접착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정량화된 경제적 효과는 없지만 성능개선 가능성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가 분명하다고 확신하며, 한국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Q. 한국에서 Hycasyl을 포함한 첨가제 마케팅 전략은?

ARAC을 통해 한국시장에 Rhein Chemie 제품의 우수한 성능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아시아 PU 시장에서 한국은 기술적인 리더십을 유지해왔고 아시아 시장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키 마켓(Key Market)입니다.

Rhein Chemie의 제품군은 이미 주력시장인 유럽과 미국에서 검증된 고부가가치제품이기 때문에 접착제 첨가제 제품군의 출시를 계기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학저널 2010/12/6>